

광주·전남 청년 해마다 1만여명 수도권으로 '탈출'

교육·취업·임금·문화 등 격차 크고 일하고 싶은 대기업 없는 것도 원인
청년세대 트렌드 맞춘 행사 기획·상권 분석...청년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광주·전남 청년들의 '엑소더스'가 심각하다. 취업과 교육·문화 인프라 등 수도권과 지방 간 과도한 격차 때문에 광주와 전남에서 매년 1만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은 올해 6월 기준 2만4606명이다.

세부적으로 ▲2020년 5996명 ▲2021년 5268명 ▲2022년 5346명 ▲2023년 5072명 ▲올해 6월까지 2924명이다.

광주에서 매년 5000명 이상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향한 청년들은 2만2392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828명, 2021년 5149명, 2022년 4044명, 2023년 4094명, 올해 6월까지 2277명이다.

광주·전남 모두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1만여 명의 청년들이 꾸준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지역 청년들은 각종 인프라를 이유로 수도권행을 택하고 있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뒤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도 수도권으로의 '탈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떠나는 배경에는 지방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이 높고 평균 임금이 더 높은 수도권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대기업이 광주·전남지역에 없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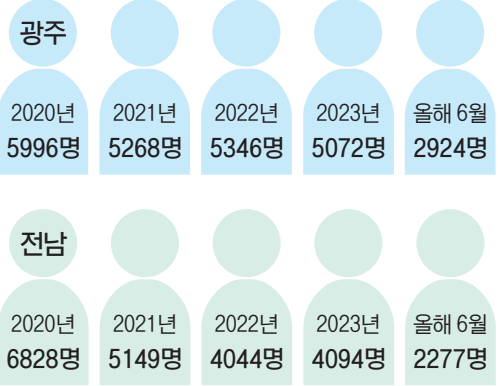
특히 최근에는 지방과 수도권에 갖춘 교육·문화 인프라 격차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학 등 포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코딩·인공지능(AI)·어학 공부 등 수요가 있어야 강의가 열리는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이 월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광 출신인 대학생 정선형(여·22)씨는 "수도권이 많은 취업의 기회와 인프라 측면에서 더 우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더 많이 경쟁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학생인 주경원(여·19)씨는 "광주가 기본적인 문화생활과 교통 등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들은

■ 광주·전남 청년 수도권 이동

(국가통계포털(KOSIS)·대상 20~39세 청년)



시간이 지날수록 특색함과 독창성, 맛을 중시한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늘 새롭게 변하는 수도권을 따라 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자체는 지역 청년을 위한 새롭고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한다"며 "20~30년 후에도 지역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전남대에 재학 중인 김대권(25)씨는 "청년들이 도시 안에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콘텐츠 부족, 지하철 노선 부족 등 교통 문제 등이 광주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며 "지방의 청년들이 청년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청년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주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만이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 맞춤형' 교육·문화 전문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은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대 등에 대학·기관 간 협약으로 학생들을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신설해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원장은 또 "교육이나 문화 부문에서도 MZ 세대의 요구에 맞춤형 전문 설계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시대"라고 하지만 지방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일회성이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맛 좋고 풍성한 쌀요리 경연대회

전남 지역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쌀을 이용한 요리들로 대결을 펼치는 '제2회 전국 쌀요리 경연대회'가 24일 순천시 용당동 효산고에서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이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무안군, 군 공항 이전 약속만 하면 당장 민간공항 무안 이전 나서겠다"

강기정 시장, 1조 지원 조례 준비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만 있다면 당장 민간공항 무안 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합의서 문안에는 호남 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군 공항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민간공항은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내년 6월까지 군 공항 예비 후보지 지정과 함께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으로 이전을 확정 하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오늘이라도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무안군과 전남도의 유의미한 약속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그냥 풀린다고 본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비 후보지 문제 등을 내년 6월로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렵다"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의미있는 진전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전남지사 등과 의미있는 진전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

다"면서 "무안군의 의견 표명이 중요하다. 예비후보지 지정이나 의사 표현, 어떤 것도 괜찮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진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최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남도의 대응을 '함흥차사'로 표현해 촉발한 갈등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강 시장은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을 못 알아줬거나 폄하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기본을 상하게 했다면 공개적으로도 사과할 수 있다"면서 "함흥차사 발인도 양부남(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이 모두 모여서 의논하고 제안했는데, (전남도는) 오지 않았다는 뜻을 애기한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군 3조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무안군수와 3차 회동을 안내하고,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무안통합공항 합의문까지 발표했다"며 "과거와 비교해 엄청난 노력을 해주셨고, 전남도의 변화한 모습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의료대란 막기 응급실에 40억 지원 ▶2면

'티니핑' 열풍에 등골 휘는 부모들 ▶6면

KIA 아기호랑이 11명 챔피언 됐다 ▶18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치 또 같이'

HS HYOSUNG

HS효성의 심볼인 'MASTERIA'는 '근원·나무(숲)'를 뜻하는 'Materia'와 별의 여신을 뜻하는 'Aster(별)'의 라틴어를 블렌딩하였으며 'Master, Material' 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HS효성의 로고는 '새벽별'이라는 효성의 이름과 함께 해오며 늘 세상과 우리 삶을 가치있게 이끄는 '별'과 깨끗한 공기, 시원한 그늘 등 여러 가치를 만들어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통해 건강한 미래를 상징하는 '나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제공하는 'Leading Star, Value Tree'로서 HS효성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